東亞日報
夕刊
七月九日(金)

日中兩軍各其撤退·戰雲解消?

松井、張兩氏折衝結果 雙方의意見完全히一致

各第一線部隊에停戰命令

一晝夜에亘한戰鬪停止

【北平九日發同盟】 冀察側代表張允榮氏는 九日午前一時 松井特務機關長을 訪問하고 約二時間에 亘하야 盧溝橋事件의 解決에 對하야 折衝한 結果雙方의 意見은 完全히 一致를 보앗으므로 兩軍事當局은 即刻各第一線部隊에 對하야 射擊停止命令을내리엇다 이에 依하야 一晝夜에 亘한 戰鬪狀態는 午前五時(日本時間午前六時)에 이르러 全然解消되매 日本軍은 永定河의 左岸平漢線의 東北地區에 集結하고 宛平縣城을 떠못하야 盧溝橋附近에 잇든 中國軍은 늣어도 午前九時頃까지에는 永定河右岸에 撤退를 完了하게되엇다 中國軍撤退監視를 爲하야 日本軍側에서 中島冀察軍事顧問 中國側에서 冀察外交委員會 專員 林耕雨氏가 現地에 出張하얏더니 中國軍이 撤退를 기다려 徐徐히 今番의 事件도 告終하게될것이다

事態漸次平靜化

中國軍에命令의徹底缺如로 撤退中의日本軍을一時射擊

【北平九日發同盟】 中國側의 不誠意에依하야 第一線은 再次交戰狀態에 들어갓으나 北平에서의 日中交涉當事者는 아즉 局地的解決에 努力하고 곧 現地에 사람을 急派하야 再次交戰하게된 原因을 調査시킴과 同時에 雙方命令의 徹底를 圖하고잇엇다 어쨋든 九日午前七時頃砲聲은 大體中止되게되어 再次事態는 平靜으로 돌아가고잇다

日本軍三名負傷 再次交戰狀態

【北平九日發同盟】 日中兩軍戰鬪中止에 關한 松井、張允榮協定에 依하야 中國軍에앞서 九日未明에 永定河左岸地區로부터 撤退를 開始하엿다 [illegible] 日本軍은 協定實行을 爲하야 第一線部隊에 射擊中止를 命하엿는데 [illegible] 中國軍은 命令의 徹底를 缺하야 [illegible] 日本軍의 撤退에 [illegible] 再次戰鬪가 開始되어 午前六時頃부터 雙方이 再次交戰하게되엇다

【北平九日發同盟】 [illegible] 日本軍은 [illegible] 合하야 中國軍은 [illegible] 命令의 [illegible]

撤退交涉으로 中島中佐와 張氏現地에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松井特務機關長의 命令으로 [illegible] 中島中佐 [illegible] 九日午前五時 [illegible] 張氏와 同行 [illegible] 現地에 向하엿다

平和解決의曙光

日中雙方의諒解에依하야

【北平九日發同盟】 停戰撤退命令에 依하야 [illegible] 日中雙方의 諒解에 [illegible] 平和解決의 曙光을 보게되엇다

秦市長遺憾表明

【北平九日發同盟】 北平市長秦德純氏는 [illegible]

平、津에戒嚴令

北寧鐵路運行中止

【北平九日發同盟】 北平市內의 [illegible] 不安은 [illegible] 八日午後 [illegible] 戒嚴令을 宣布하엿다

【天津八日發同盟】 天津市는 [illegible] 盧溝橋事件의 影響을 받어 八日夜부터 臨時戒嚴令을 宣布하게되엿다 [illegible] 北寧線의 運行을 中止하엿다

生命財産保護를 加藤書記官要請

【北平九日發同盟】 [illegible] 北平市內에 在留하는 [illegible]

葉山御用邸에 近衛首相伺候

【東京電話同盟】 近衛首相은 九日午後三時 葉山御用邸에 伺候하야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盧溝橋事件의 經過와 一般政務에 關하야 奏上하고 [illegible] 退下하야 夕刻歸京하엿다

秩父宮殿下 만취人日御見學

【만취八日發同盟】 秩父宮殿下께서는 八日午前 [illegible] 着하시어 [illegible]

臨時閣議決定

【東京電話同盟】 政府發表 盧溝橋事件處理에 關한 臨時閣議는 九日午前八時半부터 開催하야 [illegible] 事件의 經過 및 陸軍大臣으로부터 報告를 들은 後 그 處理方針을 다음과 如히 決定하엿다

一、今次事件의 原因은 全然中國側의 不法行爲에 基한것
一、日本側으로서는 事件不擴大의 方針을 堅持하는것
一、中國側의 反省에 依하야 事態의 圓滿收拾을 希望하는것
一、萬若 中國側이 反省치 안는 境遇에는 [illegible]

【東京電話同盟】 政府는 北中事件에 關하야 九日의 定例閣議를 午前八時半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하고 杉山陸相、廣田外相等으로부터 各各現地의 情勢를 報告하엿다

事件不擴大方針堅持

危機에直面하면機宜處置

各閣僚언제든지待機

【東京電話同盟】 八日附近에서의 中國兵의 不法射擊事件에 對하야 杉山陸相은 九日의 閣議에서 同事件의 內容과 그 後의 經過를 報告하고 [illegible]

第廿九軍 平靜

蔣介石氏事件擴大防止電命

【天津八日發同盟】 [illegible] 第二十九軍의 動向은 [illegible] 北平附近과 北寧沿線의 中國軍은 [illegible]

廿九軍首腦部重要會議

【北平八日發同盟】 日中衝突事件發生과 同時에 第二十九軍首腦部는 [illegible]

四相會議는 中止

【東京電話同盟】 日中兩軍衝突事件에 關한 關係四相會議는 九日의 閣議前 午前八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催될 豫定이엿으나 [illegible] 中止되엿다

小會派新交涉團體 結成周旋人會

【東京電話同盟】 小會派의 新交涉團體結成問題에 對하야는 九日午後三時부터 [illegible]

海軍首腦部徹夜

事態에卽應準備

【東京電話同盟】 北平豐台에서의 日中兩軍衝突事件에 關하야 海軍에서는 八日朝來 [illegible] 軍令部、海軍省 [illegible] 首腦部가 남어잇어 [illegible] 今後의 情勢에 對處할 準備를 [illegible]

朝鮮軍도緊張待機中

今番 北中事件에 [illegible] 朝鮮軍司令部에서 第二十師團 [illegible]

汪氏急遽歸京後 要人會議를召集

蔣氏中心軍事要人往來頻繁

【南京九日發同盟】 廬山에 잇든 汪兆銘氏는 九日早朝 廬山으로부터 南京에 飛來하야 곧 在京要人會議를 召集하고 [illegible]

[illegible] 蔣介石氏 [illegible] 軍事要人의 往來가 頻繁하고 [illegible] 中國側의 態度가 [illegible]

對策三項決定

事件의擴大防止、圓滿解決等

【南京九日發同盟】 [illegible]

一、事件의擴大防止 [illegible]
一、[illegible]
一、[illegible]

上海中國人動搖의光 當局嚴重警戒

【上海九日發同盟】 [illegible]

對中嚴重抗議를

日高參事官에訓令

川越大使에겐南京歸任訓令

【東京電話同盟】 廣田外相은 [illegible] 南京 日高參事官에 [illegible] 中國側에 對하야 嚴重抗議를 提出하도록 訓令하엿다

日本側三十名 中側百七八名

南軍損害와 駐屯軍發表

【天津九日發同盟】 九日午前五時까지에 判明된 日本側의 損害는 戰死下士官三名、負傷 [illegible] 名計十名 [illegible] 合計二十名 中國軍의 損害는 百七八名 [illegible]

朝鮮軍聲明

朝鮮軍當局은 今次 盧溝橋事件의 原因은 全然 中國側의 不法行爲에 [illegible] 今後 [illegible]

分離統治方式에 아、猶兩民族不滿

一部에反英暴動說

【예루살렘七日發同盟】 英國政府는 下院에 팔레스티나 問題에 關한 [illegible] 아라비아、猶太兩民族은 [illegible] 分離統治方式에 不滿의 [illegible] 一部에는 反英暴動이 [illegible]

總監十七日發渡東

大野政務總監은 中央議會 [illegible] 特別議會에 出席하기 爲하야 [illegible] 十七日午後 [illegible]

豫算案携行 水田課長渡東

特別議會에提出

水田 總督府 司計課長은 十日午後四時十五分 京城驛發로 渡東하기로 되엇다 [illegible]

參議府副議長에 田邊參議를任命

【新京八日發同盟】 [illegible]

政友後任總裁問題

三代行委員을 宮田氏가訪問

【東京電話同盟】 政友會 後任總裁問題에 關하야 宮田光雄氏는 七日午後 前田、島田、中島의 三代行委員을 各各歷訪하고 [illegible]

陸相、閣議前 重要協議

首腦部招致코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消息

▲近藤〔一氏〕 [illegible]
▲西村眞太郞氏 [illegible]
▲大野綠一郞氏 [illegible]
▲宮崎達任氏 [illegible]
▲鈴木[illegible]一氏 [illegible]
▲小丸源左衛門氏 [illegible]
▲米田甚氏 [illegible] 今日本社來訪

橫說堅說

▼西班牙內亂이 [illegible]

號外發行

北中의 日中兩國兵 衝突事件에 關하야 本社는 今九日 號外를 二次發行하야 市內讀者에게 配付하엿읍니다

ClibPDF - www.fastio.com

光明의聖女·明日上陸

三重苦의헬렌의親友 朝鮮에二萬千名!

三중고의 성녀(聖女) 『헬렌켈리』여사는 드디어 명일에 조선의 땅을 밟게 되엇다. 조선안에서 이성녀와같이 三중고를 당하고 잇는 불상한 사람들을 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맹아(盲啞)를 합해서 그총계가 二萬一千五百六명의 다수에 달한다.

이들을 맹아로구분하야 보면 맹인이 一萬一千二百六인 이오 아인(啞人)이 一萬三百인 이라 한다.

남녀별 맹인이 아인보다 九百六인이나 더만타 이들중에 일본내지인은 맹인 百二十인이오 조선인은 맹인 一萬一千八十五인, 아인이 一萬二百十인으로 조선인합계가 二萬一千二百九十二인이오 외국인은 十八인 … 이 무직으로 …

어리의 취직편이 늦은 편이다. 이들을 분포별로 본다하면 경남이 수위이오 함북이 최저인데 이들의 교화기관은 간신히 관립제생원 맹아부가잇고 사립으로는 평양에 맹인학교가 잇을 뿐이다.

이들의 분포별을 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京畿 一、九二七人 ▲忠北 八六〇人 ▲忠南 一、五二七人 ▲全北 一、二七一人 ▲全南 一、九九八 ▲慶北 二、三三八人 ▲慶南 二、四八八人 ▲黃海 一、八五五 ▲平南 一、二二二人 ▲平北 一、七二二人 ▲江原 一、四五二人 ▲咸興 一、三二九人 咸北 六一八人 計 二一、五〇六人

盲啞生입만 벙글벙글 歡喜에넘친濟生院

聖女맞이『피아노』도練習

『우리에게 빛을 주오』『우리에게 소리를 주어』인간 최대의 불행에 빠진 맹아 [illegible] 이런 소원도 영원히 이루지 못하것으로 나인되어 1들의 숨은 한상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것이나 이제 삼중고의 성녀 『헬렌·켈러』여사가 멀리 조선에까지 찾아온다는것을 듣고 환희에넘치는 신교정(新橋町)의 맹아학교인 제생원(濟生院)을 찾엇다.

연화산 허리밑에 넓은 자리를 잡고 깃어가는 녹음에 조는듯한 이학교에 헬렌 여사를 맞는 준비로 부산한 분위기 중에도 피아노 소리는 어린 맹아자 그들에게 기쁨의 파동을 예고키고 수화거리는 장님생도들의 소리, 공중에 불기둘 그리는 벙어리 생도의 수화(手話)—모든것이 어상한 긴장미를 발산한다.

연원한 불행에 잇는 그들에게 『헬렌』성녀는 큰 희망의 빛이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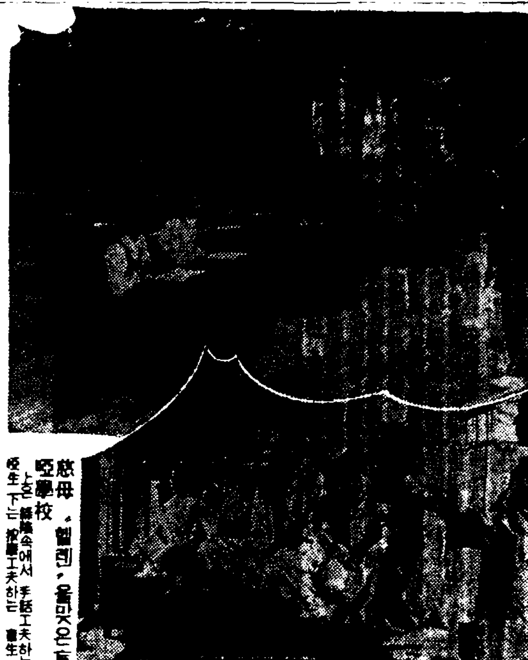
女史의日程

一、세기의 기적적(奇蹟的) 성녀『헬렌켈러』여사는 드디어 앞으로 이틀째 남지안흘 十一일 밤에 이서울에 도착하게되엇다. 동여사가 조선에 들어서서의 여정(旅程)은 대개 다음과갓다.

▲十一日 午後六時釜山着 ▲十一日 午前十一時半京城着

▲十二日 午前七時二十分釜山發 同日午前九時四十五分大邱에途中下車、一回講演 ▲十二日 午後一時四十二分大邱發 ▲同日 午後十時三十五分京城着 ▲十三、十四日 兩日은京城滯在 十三日午前十一時朝鮮·호텔에서 新聞記者會談、同日午後四時二十分에는 府民館에서 一回講演

▲十四日 朝鮮社會事業協會外 六團體主催로 府民館에서 女性에限한講演 同日午後七時三十分에는 男子에限한講演 ▲十五日 午前十時半京城發、同日午後三時三十五分平壤着 同日午後七時三十分平壤講演 ▲十六日 午前七時三十分平壤發 同日午前十一時三十分安東着



慈母『헬렌』을맞으온盲啞學校 上은盲啞生 下는手話工夫하는啞生

이 성녀를 얼마나 반겨하는 가는 그들의 자필속에 섞인 간단한 문구에서 찾어보자.

『무한 기쁨으로 헬렌 선생의 속히 오시기만 기다립니다』『헬렌씨는 인간은 어떠한 불구자라도 그 뜻과 정성 여하로는 무소입는지 할수있다는것을 실증하섯다니 경탄으로 가듭니다. 가슴이 뛰고 내게도 금방 빛이 보이는것 갔습니다』『여사의 성공을 듣고 모든 슬픔도 사라지고 마음도 명랑하게 젓습니다』『아모조록 몸 건강히 계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모든 불구자를 위해서 『헬렌』어머니의 축복을 빕니다』

이 맹아학교에는 현재 재학생이 一百四十三명이며 맹생(盲生)이 四十六명 아생(啞生)이 九十七명 이라하며 지금까지의 졸업생이 三百四十八명이라 한다. 그리고 시내에서는 통학하고 지방사람은 기숙사에 수용케하고 극빈자는 무료로 수용하여주며 현재 교사로는 여러가지가 불편하야 방금 신축공사중이라고한다.

『헬렌』성녀는 十五일 오전十一시 동교를 방문하고 불구자의 어린 아들과 딸들에게 자모(慈母)로서 위안과 격려의 말이잇은 다음 조선맹아협회의 총회까지 아울러 잇을터이라 한다.

潛水로搜査나 二名은溺死

◇永宗島顚覆事件

【仁川】 기보 인천군 영종도(永宗島) 전마선 전복사건은 八일 오후에야 겨우 비교적 상세한 판명되는바 그들중의 소는 여전히 불명이며 九일은 잠수부까지 대동하고 출동하야 적극적수사를 행하는데 지금까지 十五명이 타엇는데 기보한 구조자 九명외에 박칠성(朴七星)(二十)이만준(李萬俊)(㊉)과 김상희(金相熙)(㊉)의 三명이 더구조된 것이 판명되어 결국 一명만이 행방불명인것이 판명되엇다 한다.

그런데 그들은 선개전부는 각처에서 모집되어 영종도방면으로 일을가든도중 그와같은 참변을당하엿다 한다.

가정부인들로서 침고할것이 만흐므로 회원아닌 여러분이라도 만히 참석하여주시기를 바란다고 한다.

家婦協會에서 特別講座開催

十일오후三시에

가정부인협회에서는 七월 월례회를 기회로하야 이번에 동경에서 양재봉과 수예에대하야 연구를 마치고 돌아온 배상명(裵祥明)여사를 청해서 양재봉과수예에대한 실습강좌를 태화여자관에서동일 오후三시부터 열기로되엇다고한다

順安義明校의存廢 來日曜日에討議

無補償讓渡說이有力

부내 회기정(回基町)에잇는 제七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第七日安息日耶蘇再臨敎會)에서 우금三十여년동안 경영하야오는 평남순안(順安)에잇는 의명학교(義明學校)는 지난三월에 폐교하기로 결정하야 매도설(賣渡說)까지 떠돌게되엇는데 동교는 조선합동교회(朝鮮合同敎會)에서는오는十一일 오전十시부터 회기정동교회에서 동교성립자요 조선합회장인『오』(吳)목사를 비롯하여 교우대표 조상五十여명이 모여 다시 동교문제를 토의하기로 되엇다 한다. 현재 동회의 공기는 무보상양도(無補償讓渡)설이 자못 농후하다는바 그날의 투표결과는 관 동교의 사활문제(死活問題)이므로 대단 주목된다 한다.

悲戀에飮毒

高商學生의 짝사랑

전주(全州)에가서 맛으려는비련(悲戀)한학생 八일오후六시반경 부내명치정(明治町)二정목二五번지 『료(綠)』아파-트 제九호실에 잇는 경성고등상업학교(高商)三년생 이 [illegible] (大)이라는 학생이 다량의 칼모친을 마시고 신음하는것을 아파-트여급이 발견하고 주시부근 판정병원(坂井病院)에 입원시켜응급치료를하야 생명만은 건젓다한다 이에 자살하려던 원인을 들은즉 그는 약三개월전부터 그아파-트에와서 투숙하고있엇는데 가끔 여급 [illegible] 에서 『스미코』라는 묘령의 녀자가 일하고 잇엇는바 여시六일에 도스미꼬가 왓다간후 돌연 울음을하고 [illegible] 『스미꼬!스미꼬!』가을제비처럼 싸늘하게 떠나간 스미꼬! 나는 천국에가서 너를기다리리라 하며 스미꼬를 연모하고 잇엇다 한다.

線路베고納涼甘睡中 四名이鐵馬에轢死

昨夜 和順萬水間에생기일

三兄弟가一時에慘禍

무더운 여름밤에 시원한 바람을 찾어 철도우에 단꿈을 이루다가 진행열차에 늑일되는 일이 잇는데 이번 八일 오후十一시 三十분경 송정리(松汀里)발 보성(寶城)행 제 三九四열차가 화순 (和順), 만수(萬水)간을 통과할때 철로를 벼개삼고 깊이 잠들어 잇는 화순군 화순면 계소리(桂所里) 배동수(裵同水)(㊇) 배중문(裵仲文)(㊇)의 형제 三인과 화순면 나리(羅里) 㝡의 四명이 갈리어 즉사하엿다. 피해자들은 장마에 우울하야 간만 자란듯이 그같은 선상을 내엇는데 피해자의 신세를 무엇으로 보아 …기대하고 다만 몸의 휴식을 …

업마나 고연는가 보러온길에 잠들…아 불수없다고 한다.

◇六月興業狀況 지난 六월중의부영공의집을 府營□의성적은 다음과같다.

▲貸出方面 貸出數 金額 東部 …人 … 西部 … 計 …

▲回收方面 回收數 金額 東部 … 西部 … 計 …

이성을 작년동기에비하면 대출방면은 대출자가 一百九十七건, 금액에 잇어서는 二千四百二十五원회수가 九十八건, 금액은 六百五十원이 증가하엿고 회수방면은 회수수가 九十八건, 금액은 六百二十원이 증가하엿다.

北部慶北에洪水 上流洛江刻刻增水

昨夜暴雨에溺死者만三名

道路崩壞로交通杜絶

【大邱支局電話】 경상북도북부에는 우 七八일간 호우가나리기 시작하야 낙동강(洛東江) 상류의 수위는 西일 九·一 시에 이르러 현재도 가지고 증수되고잇다. 그런데 어떤 비에 분리가 된 면상리 … 가운데 홍수로 김봉수(金鳳洙)(三一)씨와 … 세명은 여사되엇다. 그리고 그밖에 사봉사 선로는 전부 교통두절의 현상이엇다.

慶北南部엔旱魃

경북 북부에서는 홍수가나는반대로 경북여남부 대구(大邱)에서 … 군 남부 … 현재 … 비가오기는하나 해갈의 미이앙지를 보이는 현상을 여우요 무수한비로 망의뿐지를 … 이 …

各地水害

수일이래의 가지상우로 협미암이 있는 수해정도는 다음과같다.

遠力은禍根

九일오전 六시경부내광화문통네거리에서 대문방면으로부터 대소리를 내어 오는 자전거를 탄 청년 성변미 상이 알을 지나려든 행인을 피하다가 이나 … 로 어머지며 머리를 에부디쳐 뇌출혈을 일으켜 서린정 瑞麟町 … 에 메리다가 … 시부명으로 …

萬頃江沿岸浸水

茂朱、錦山間으로不通

錦江增水廿七尺

【全州】 八일의 호우는 무주(茂朱)군 부내에 넘어오 침수지대가 만어엿는데 그리고 무주 茂朱 錦山 錦山 … 다하여 부러 … 교통이 두절되엇다 한다.

【全州】 호우지방에는 계속되어 농촌에서는 수해를 지 못하더니 지난七일부터 쏟아지는비는 八일이침에까지 풍우하여 금강(錦江) … 대전(大田)군산(群山)간에 … 만어 계획되고 … 까지 …

導越、交通이絶杜

【群山支局電話】 지난 七일부터 계속된 비는 연일하여 나리는 비도 그칠줄을 모르고 … 부터 폭풍우가되어 주야계속하여 … 침수되어 … 가하고 … 수해를 …

暴雨로洪水念慮

全北의水防團待機

全州에서避難所準備

【全州】 지난 八일 오전十시에 四十세의 수방단(水防團)의 준비서 전북도내각지방은 호우한 대비 … 만일 홍수가 나는대로 … 비상한 주의와 안전의 대책을 세우고저 … 그리고 … 오후一시 … 단을 비롯하야 … 표자를 구하야 … 에서 … 회의를 열고 … 의 정보, 예비구호 … 소도 협의결정하엿다.

檢擧된거리의갱 『깽깽』짖어罪狀自白

鍾路署에서野犬退治

종로경찰서위생계에서는 어지러운 개에게 물리는 사람이 만흠에 감하야 공수병(恐水病)예방주사를 맞지아니한 개를 퇴치하고저 九일아침八시부터 몇시까지 관내수처에서 무상의 개十七마리를 붙들어왓는데 그중에는 주인이 잇는 『세파트』도 두마리잇엇으나 반이상이 불발이로 정오까지에 주인이 판명된것은 단두마리뿐이라 한다.

濠洲百年記念祭에 李約信牧師出席

七日、釜山港에서出帆

【釜山】 부산부초량정(草梁町)예배당의 이약신(李約信)목사는 지난七일 오후十一시발 부산항발로 파부연락선으로 호주(濠洲)백년기념제에 조선대표로 출석하고저 교회관계자 五백여명의 전송리에 출발하엿는데 경남지방에 호주미순회의 전도사업이 만케 아니엇든 선교 그가 이예대한 것으로 조사하기로 한다음 一년에게 귀국한다고한다.

(사진은 이약신목사)

某高級官吏를 收賄嫌疑로取調

종로경찰서 사법계에서는 수일전 모관청 고급관리 무성(武盛三) … 을 소환하야 이등(伊藤)주임자신이 엄중취조중인데 탐문한바에 의하면 무성은 자기 지위를 이용하야 모어장(漁場)처리를 알선하여 주다하고 가오(加藤)… 모씨로부터 … 원의 증뢰를 반은것이 … 모양이라고한다.

낙시터新設 西大門外溜池에

경성부에서는 동양에 잇는 … 부민의 … 어나날이 격증하는 상태에 잇으나 … 교에는 그 … 에 적당한 … 시터』가 업는것을 유감으로생각하야 오든중 최근에는 이상적『낙시터』시설의계획을 세우고 그에대한 준비를 진행중이라 한다. 그후보지로는 서대문밖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옆에잇는 동형무소 토취장(土取場)을 삼고잇다는바 부에서는 방금 동형무소에 대하야 三정보에 달하는 토취장 유지(溜池)양도를 교섭중이므로 그교섭만 성립되면 즉시 공사에 착수할터이라는데 그설계는 부도시계획계(都市計劃係)에서 구미는중이라 한다.

火藥爆破로 坑夫一名卽死

【新義州】 삭주군 외남면 청교동(朔州郡外南面淸橋洞) 동양광업회사 교동광업소에서 … 일 오전 … 의 폭발로 … 이 즉사하고 … 를 입엇다 한다.

延專水上競技

제五회 연전교내 수상경기대회는 七月午前九時부터 京城府營풀에서 擧行되엇는데 그成績은 다음과 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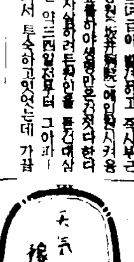
▲五十米自由型 1 閔丙斗 … 2 … 3 …

▲百米自由型 1 閔丙斗 1 分24秒 …

▲二百米自由型 1 … 3分 …

▲二百米平泳 1 尹明根 3分 …

▲四百米自由型 1 尹明根 … 6 安命 …



豫報

概況 小笠原島附近에서 西北으로向하는 氣壓이 … 日本海中部와 北海道의 … 朝鮮은 北東 … 雨天이오 …

京城地方 … 曇 …

胃腸에 アペチン錠

消化와食慾

아페친錠의主成分비타민B는消化液의分泌을增加하고、胃腸의機能을높이므로消化吸收를잘하게하고、便通을調整하며、食慾을旺盛케합니다

榮養과抗病力

아페친錠의비타민B는抗病力을强케하며、一方蛋白質·脂肪其他諸種榮養素는榮養을增進하는故로……

結核其他諸種慢性病에使用하야體力을强化하야疾病의治療를速하게합니다

適應症 消化不良 食慾不振 常習便秘 便通不整 胸部·貧血 胃腸不良 疲勞衰弱 病後の榮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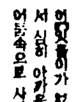
價額 …

發賣元 大阪市東區 株式會社武田長兵衛商店 關東代理店 東京 株式會社小西新兵衛商店

一人一言 (26)

悲痛한휴모어

李應淑



지나간날 자랑가 여자의一생을 가르처서 말하기를「여자는 즉생과 같이 부려먹다가 기력이다하면 죽어버린다」고 했읍니다마는 과연 여자로태여난자 특히 조선의 우리조선여자의 예전부터의 생활을 어떻게 말하여 주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허물을 쓰고나서 그외에 조차 인식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일을시키는 사람이 너무도 무거웠고 피로 우리 한치 고역을 하고잇엇오니 그사람의육체 조차 아지못할때부터 어릴 이별하기에 아모런 여념이 없을 이가 없엇고 따라서 실혀 아가운 생활중에는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분주함으로 해가 뜨면 이러나서 자기의신변을 돌볼 여가도없이 천지이시시하고 고달픈사역에 어깨여시 달리는노동을 계속하기에 하루의해는 저물고 맙니다. 이것은 외식적으로가 아니요 노동자 아시못하는그 내용의 기계적인 일과에지나지안엇으니 하등의 생으로서의 즐거움이라는 그림자는업어볼 겨를조차 없을뿐아니라 도로혀 나이라는 대상이없는 고로(苦勞)의 쓴맛외에 아모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하로의 해가지고 마는것을 一생을 두고 거듭하는 끝에는 이름도성도없는 한개 범례나 다름없이 죽어버리고 만다는것입니다. 불문이것은 과거의 내성여사의 유물인 애탠입으로 이세 세상스럽게 여기서 1성좋니

사하려는데에 뜻의가 잇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언제나 백(白)이라는것이 잇다는것은 즉 빼아닌 흑(黑)이라는 물건이 잇다는것을 분명히증거하는것이 아니겟읍니까。그럼으로보여지라는 입장이 요다지나 취미를 못한 인생구실을하고 잇다는 그반면에는 반드시 또한나의 남자라는 지극히 숭고하신 존재가잇다는것을 확실히한것입니다.

이것들을 무대로하고 태어난 남자들은 이우주는 모름지이 남자만을 위해서 잇는것이오 세상은 다 나를위해서 산다는 너무도 도에넘치고 분에기우러진 생각을하고 잇지아니한가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의 존재한 사회 페이지를 무겁고 차하게 정의하는 그이면에는 여자의 수고한 결과가 얼마나 만흔것을 입반자들이 잇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사회나 한가정에 잇어서자유로운 저리(權利)와 유리한 입장을 부쉬서하게 남용하니로서 만흔선일의 부여된것을 맛당히 발휘하는척하양은 二十세기초에는 폭살이되엇고 정당의일을 만을게왓는지모르나 二十세기인오늘날에는 잇어서는 어느정도까지 노인하는외에는 인과응보(因果應報)는 그만두고라도 一종의 정신병자취급을면치못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자라는것은 원래가 정교(精巧)하게 만드러진 악기라고 볼어거름사지 않는 숲속에서 토끼가 뛰노는을 하는 이러한 비통한 휴모어가 그다지 평탄한우위와 입장으로 위풍을 떨치는것이아님을 잘 아는 이상 별다른 풍파는 갖지 안혓것인즘 조금이라도 변사라는아비하고 어떠한 기분을 협사리 가지지안흘것임으로 다만 밤회심시 하는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정교히 만드러진 악기라고 할지라도 참다운 기술자를 만나지못할때는 조흔 맵시가 울려나올수가 없다는것을 아는이는 다 수긍할것입니다.

쉬운듯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부리는비결

부리기만하는것이 능사가아니다 지휘자로서의 주의할점

어떠한 단체나 회사나 상점이나 불문하고 그집단에는 웃사람이잇고 웃사람아래는 아래사람이잇어서 모든일을 운용하게되나니 평범한것은 가정에서 주부가 식모를 쓰는데부터 시작하야 크게말하면 큰회사 내지 한나라를 형성함에까지 어데서든지 이잇어서 아래사람은 웃사람의 명령대로 자기맡은 직분을 하는것이니 그에따라 웃사람은 사람부리기가 수월할것이 아니라는것을 체험상으로 알것이오 더구나 실제계에서는 사람을 잘부리고 못부리는것으로 흥망이 달린것입니다. 예로부터「사람을 부리는일」이 어려운일로서 사람을 잘부린것이 성공하는 근본이된다고 하였습니다.

대규모로 조직된 회사는 물론이어니와 가정에서도 하인이나 점원을 잘부린다는것은 그만큼한 필상 관계가 되는것입니다. 인간공학(人間工學)의 입장에서 오늘은 사용자와 주의 몇가지를 말씀해보겟습니다.

◇

이것을 설명하기전에 한가지말씀할것은 사람을 부린다는 일이 생각부터 개량하지않으면 안될것이니 사람을 부리는이가잇고 부림을 받는이가잇다는것은 다시말하면 지배, 피지배라는 관련이 근본부터 잇는까닭이니 이것은 근절되어 아니될생각입니다.

한회사이든지 가정이든지 한솥사람이 집단하야 일을하고잇는이상 서기는 활동하는일의 기능이되고 일의방향을정해서 통제하고 감독하는일 즉 지휘활동이 필요하으로 거기종사하는 지휘자가잇어야할것이니 통트러서 고주(雇主)라든가 웃사람이라는칭호는 지휘자가될것이오 결코사람을부리는사람이 아니오「지휘」하는일에 종사하는 일개종업원의 기분이어야면 안될것입니다.

◇

지휘자가 받는사람을 지휘하는이상 첫째로 생각해야 할것은 사람과사람사이의「통일」과 협동(協働)이라는것입니다. 한집단 안에는 여러가지 부서(部署)가잇으니 그각 부서가 일치협력하게되면 사업활동은 점점 원활하게 발전될것은 물론입니다. 이업적을 얻는데는 지휘하는 이는서 지휘를 받는 사개인을 아모리 여러사람이라도 살리고 이해하지 아니하면 안될것이니 지휘자로서는 이것을 아는것이 근본입니다.

◇

그러면 어떠한 점에서 사람을 알고 처리할것인가를 대개 다음과같이 여러부분에 나누어 보렵할수잇습니다.

◇

一、생리인으로서의사람

사람에게는 자기자신도 알지못할 병이나 몸의 결함이 잇어서 그런때문에 일의 능률이 적어지는 경우가잇으니 지휘자는 사람은 그능률저하의 현상만을 보고 이것을 무시는 나서 내쫓는다거나 하기전에 그원인과 원인을 살찾어서 적당한방법을 강구할것이니 어떠한 인간으로서도 마땅히 할일이거니와 실상인에는 능률이 나게되는것입니다. 몸이 약한사람을 동정하야 근본적으로 병을 고치게하면 그사람은 나중에 기쁨이 부수되지는 한이 잇더라도 그수인을 위하야 몸을바치라는생각이 날것이오 더구나 자기를 위하야 병까지 돌봐준다면 그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책임(恩義)을 의무가 잇는것입니다.

◇

二、심리인으로서의사람

생리와심리는 직접관계가 잇으니 심리적으로 고찰도 능률을 올리지못하는일이만코 거기다가 생리적 원인이나 환경으로 인하야 오는일 능률이 대부분이니 일하는중에 맘의 능률이 감하게되는경우에는 그수로서 심리상 어떠한고통을 받는가를 살펴어볼필요가 잇읍니다.

(三) 사회인으로서의사람

사람은 언제나 사회인으로서의 사람인것을 떠날수없으니 여사회는 사사가가으로 떠처하야가는것이니로 이사회속에잇는 一개인는 사회와협계를하야합수밖게없는것입니다. 이점에 특히 주의하야 원만하야가는데 순응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

四 경제인으로서의사람

지금시대는 산에가서 고사리캐 먹으면서라도 지낼수잇다는 옛말은 나 수용할수없이되엇습니다

활동이 심하야상 활발하야 할것이오 사회에대한 책임이 큰이상 건전한 지식을 펜듸는데는 불가불활동이부족하면 다는것을 생각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위하야 분투하는이상 경제상으로도 상당한수입을 해서 안정을얻게하지않으면 그안정생활이상 심리상 고통을입게되니까 도저히 능률을 올릴수가없이 됩니다.

◇

(五) 단체로서의사람

여상은 각방면에서 한개인을관찰한것이지마는 하편하단체 활동에 들게되면 개인으로서 활동할때보다 다른점이잇다는것을 알어야 할것입니다. 혼자 개인으로일할때와 단체에서 한 부분적으로일할때는 그일에 적당하고 장소에 적당한것을 지휘자로서 잘알어야 할것입니다.

지휘자로서 여만한 머리를 쓰고 노력하야 피지휘자를 잘애가는데 일의 능률이 잇을것이니 아모리한노력이라도 적어떠서 일만시키면 된다는것은 지휘자 피지휘자가서로 손해를 볼뿐이 아니라수 잇습니다.

지상병원

오래동안 지상병원 문을 닫아서 미안하엿습니다. 이제 다시 문을열고 여러분을환영하오니 만히 이용하시는데 적기의 가족을반드시 지켜 주서야 하겟습니다.

、반드시 엽서로 한가지 병만 문의할것

、한글로하되 한문글자가 꼭필요하면 괄호안에 쓰도록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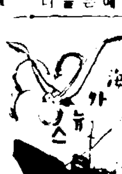
、될수잇는대로 간단명료하게할것

、자기가문의 한병은 속다른 사람도 문의하기가쉽으니까 자기가 부른데 대답이아니라도 될수잇으면 남의것을 참고하야 언제나 같은문의가 거듭되지 안케할것

여상 규측을 위반한자상병은 전부 불수취할것이니양해 하십시오

학예부 백

海外뉴-스



자동차충돌로 형제가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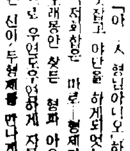
과거二十년간 형제가 서로헤여저서 서로찾지못하고 만나기를 단념하엿더니 우연하게도 표류사건의 덕으로 화가벽이되엇다는이야기가 잇습니다. 카나다 온타리오주 어떠가노에서 부대의자동사가 정면충돌을하야 한편은 사륜 손상하게 되엇으나 로 자동차주인 쫑•마로-씨는 격노해서「여보당신은 허가를 모른다말요」하고때리어들어 나오시오 라고하니까 한편신사가 대답할것 하기는했으나 당신이 너무속도를 냇기때문에 그리되엇지요」「무어어째 건방지게 남이 속력을내거나말거나 무슨상관이야。이 몸이 무엇이오」「나는 국보•마로-라는 사람이오」이오한즉「무어 나는 쫑•마로-네 아 나시오」「아 형님아니오」하며 서로 부잡고 야단을 하게되엇는데 어저렀한은 마로-형제가 서로 오래동안 찾든 형과 아오엿으므로 우연한동 우연하게 자동차충돌을 은 신이 두형제를 만나게 하엿다고 형은 부서진 자동차를 버리고 아우의 자동차로 형의집에 다리고가서 상추지회를 풀엇다고합니다.

第六回 律動遊戲講習會

要項

期日	自七月二十日—至同二十四日
場所	京城貞洞培材高普講堂
科目	律動遊戲、童話及童劇
講師	李燮宙、金泰午
會費	三圓(但初等學校教員二圓五十錢)
特典	第五回講習者에게는特別割引이잇음
宿舍費	六十錢(二食)
申請	七月十八日까지 中央保育學校內

主催 朝鮮保育協會 後援 本社學藝部



七月九日(金)

第二放送

▼六時 京城 …… 五인스(一) P•D•퍼킨스

▼六時三十分 兒童と先生の時間 一年生 四年生

▼七時半 …… 宋聖興

▼八時 講演 日常生活衛生 李 ? 夏

▼八時三十分 …… 交響曲 …… 作曲

▼九時 古歌 •黃鶴• 金 丸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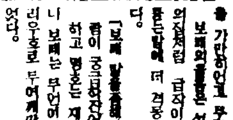
▼十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레코-드音樂—보통노리大會(京城)

▲六時半 …… ▲六時三十分 (東京)音樂會 ▲七時三十分 東京 ▲八時三十分 東京 ▲九時 東京 時事解說

해바래기? 아닙니다。여름밤의 불꽃이죠。

當選小說 彼岸의太陽 (34)

李圭熹 作 盧心汕 畵



(정원)情怨 三

명호를 찾아와서

「길동에바 뒤우러 옹!」

하고 그는 보배의어깨에 손을 올 가만히어고 무럿다。

보배의눈물은 싱글거리든 밤의진처럼 급자이 커젓다。명호를는밤에 더 격동이 된 모양이엇다。

「보배 말을좀해야입지 보는사람이 궁금허잔어?」

하고 명호는 재처무러섯다。그러나 보배는 무언이엇다。쭉숙인머리우로 무어게만여 요동할뿐이엇다。

명호는 만일 이때가 밤이엇드면 힘차게 보배를 안어주고싶은충동을 느꼇을것이다。그는 안타가웟다。

서로 만나면 수집어지고 한말이잇으면서도 못하는 그들이엇지마는 은사정을 하소연하고 또 그것을 동정하게여르는 마당에는 서로 똑하는전에엇고 서로 마음을만난 그들사이에엿어서만 진실로 진실을잡수잇는것이엇다。

명호는 무엇이라고 위로할말이 잇엇드래도 먼저 사정을알기전에는 말외에두를 별수가없엇거니와 또 말을하야지나 무슨위안을줄로르나 입을봉하고 잇기에는 너무도 안타가웟다。

그래서 그는 몇번이나 보배의 손목 어깨에 계손이가는것을 컵치하고는 어색하게 무름한 얼얼어쳣다。

「그러케 잠잣구만잇으면 곁에서 보고잇는사람이 답답하지 안허? 왜울어? 대관절무슨일이야 응?」

하고 명호는 몇기풀날을 하나끔아돈고

「왜요 오빠생각을 하는게지 배니 쓸데없이」

하고 집자이나 안은 이 이햇다. 보배는 가득케 머리를 상으로 흔들고

「안야요 옵바생각이야 하는 생각이지만…」

하 말을 잇지못하고 또 울다 엽마를렬고나서

「……난 어떠커면 조흘지? 살자니 살수도 없구 죽자니 죽을수도 없구……」

하고 또 고개를 떨어트렷다。

「아니 무슨 걱정이 생것길내……?」

명호도 예정함을 견디지 못하는듯이 보배의 어개를 흔들면서 무럿다。

보배는 어술을 가득하게 담은 눈을 들려서 명호를 잠간 처어다보고 다시 고개를 숙여버렷다。그리고 얼마잇다가 눈을 아래로 깐채로

「순이 자근오빠!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라구 욕설을 하실른지 모르지만 그러치만 내죄도 안예요! 없는것 한가지가 원망스럽고 탓이되고 한이 되지요! 모두가……」

하고 수수꺼끼갓은 말을햇다。

명호의눈은 한참이나 둥그러케 버러진채로 잇엇다。그는 자기가 모르고 잇는사이에 보배의 몸에 어떠한 변동이엇엇든가?하고 생각하는것이엇다。낙안은 한줌 너커젓다。

「그게 무슨소리야 응? 무슨 죄가 잇는것이며 누구가에 무슨일이 잇기에런고 응? 말좀해바 걱정하니…」

하고 명호는 바싹다어앉어서보챗다。아마 명호가 이처럼성급히 구러본적이 별로없엇을 겻이다。

「나…순이한테도…이런말은 못햇세요。나를…용하지마서요」

보배는 겨우진정하고 간간히끈허가면서 말을하넛다。빼이는 목소리를 다듬는 것이엇다。

「응 말을해바 무슨말이든 내게야못할말이 잇을나구? 보배일이곤 내일인데—」

하는 명호도 흥분갈이되엇다。

보배는 말의갈피를 찾는모양으로 한참이나 말이없이잇다가 바위가 빼개저라하고 한숨을 내여쉬엇다。그리고 명호의 기색이나 살피는듯이 그의 얼굴을 힐끗보고 도로 시선을돌려서 바다를내다보드니 다시 바다를 나려다보면서

「난 사흘만잇으면 서울로가요」

하고 힘없이 말햇다。

「머? 서울?」

명호는 반신반의의눈으로 보배를바라보면서

「서울은 왜?」

하고 짜라앉은 목소리로무럿다。너무도 의외엇엇다。그가 아는정도에서는 서울에는 보배의친척도 없엇고 보배가 서울에가다는것은 꿈에나 멋쓸일이엇다。

恩給 … 京城 … 七七番 … 商會

蓄音器 山に!野に 新ポータブル 世界的優秀製 京城黃金町 銀座通信販賣部 (カタログ呈) ¥19.-

壓倒的人氣流行歌 蔡奎燁 콜럼비아 레코-드

最近의傑作流行歌 斷腸哀曲 劉鍾燮 / 女子의純情 金仁淑 / 流浪의曲藝師 劉鍾燮

銀粒 特約店大募集乞照會 見本請求者는要郵券

십보단 十寶丹 賣藥部外品 四五粒口中に含めば身心爽快 定價 300粒入 ¥.10 1000粒入 ¥.30 十寶丹營業所

全鮮有名藥店及煙草店ニアリ
朝鮮鐵道局驛構內賣店ニアリ

御贈答には 明治の菓子 明治製菓株式會社

君不見山東胡白菜乎아 通信大賣出 山東農園 包頭蓮 純支那種 是乃四種 勿疑!

朝鮮總督府認可 京城自動車學校 生徒募集

京畿道認可 仁川自動車講習所開設 自動車講習生大歡迎、學費低廉、內容充實 實習會場

典當舖 大塚支店

胃腸病特効藥 內用電氣 即治水 漢城藥館本店

夏屋

漁具 秋岡商會

若草製粉 星 丸星製粉工場

링겔오케링 / 青山膏 / 옴히빽고 / 不老丸

經＝濟＝話＝題

金融機構整備

어떠케되어왓는가

(四) 全弘鎭

殖產銀行

慶尙農工 明治四一、八 (晉州農工 明治卅九、六 / 大邱農工 明治卅九、七)

漢湖農工 明治四〇、六 (公州農工 明治四〇 / 忠州農工 明治卅九、一 / 漢城農工 明治卅九、六)

平安農工 明治四一、八 (平壤農工 明治卅九、六 / 海州農工 明治卅九、六)

咸鏡農工 明治四一、八 (咸興農工 明治四〇、九 / 鏡城農工 明治四〇、八)

全州農工 明治卅九、六

光州農工 明治卅九、八

產米增殖計劃 五年計劃으로復活

新產業五個年計劃과併行하야 目下具體案立案中

運送統制에備하야 丸計增資決定

京城勞賃昂騰

工事關係가特別高

元老拂問題 圓滿解決困難

總督府歲計 剩餘新記錄

◇…歲入增加一千萬圓

歲入超過原因

一百圓無盡과 萬圓無盡出現

輸出鹽魚統制 打協會議開催

米棉栽植 面積增加

朝鮮產麥酒 對滿輸出中絕

朝鮮棉花北中移付

財界瑣信

商品市況

▲占米暴落

▲滿粟强味

▲杞柳小高

◆農產加工品

▲綿布不變

◆穀類 (單位石)

◆肥料

今日의市況 (七月九日)

株式 (單位十圓) 期米 (單位石) 正米 (三等單位) 商品 (單位十圓)

時勢와市況

株式 傍觀 雙方모두

財◇海◇餘◇波

前場閑散

外電無響 保合으로終始

後場保合

期米 中限反撥 伸惱

前場反撥

後場頭重

正米情勢强硬 當中限言奉制

中限煎買散見

事件進展의注目으로傍觀

全般的下落

▽東京

實物賣買價前場

米豆餘墨

南滿鐵道 (4)

主要事業會社株便覽

正米 賣氣적어 昂進

京城奔騰

仁川奔騰

群山續騰

大邱强調

釜山續伸

木浦不變

各股集合

內外金銀時勢 (七月九日)

海外金銀 / 東京金銀 / 京城金銀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益 京城 仁川 益康 證券

金銀賣買會社

海外經濟 / 金融 / 商品 / 期米 / 株式 / 正米 / 雜穀